

Coincide between Arendt and Negri

0. 분열적 아렌트와 네그리

아렌트와 네그리의 관계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에 와서도 나에게 아렌트는 여전히 (마치 짝사랑하는 상대의 심정처럼) 모호했고, 네그리의 <다중>은 아무리 읽어도 아렌트와의 뚜렷한 접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야 어쨌든, 글은 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방법은 분열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엔 모자란 능력을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개념 간의 연계를 통해 만회해 보겠다는 것이 나의 알팍한 의도이다. 요컨대, 문자 텍스트로 구축된 모자이크랄까? 또한, 영화의 기법으로 말하자면 몽타주 기법을 지향한다. 분열적이고 파편적인 개별 개념들의 연계 사이에서 새로운 사유의 장이 열린다면 나로서는 더없이 기쁜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에 대한 큐비즘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는 사실 아렌트의 작업이 나에게 큐비즘적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대상, 하나의 사건, 하나의 배경 안에 존재하는 복수의 시점들. 그녀는 혹시 시점의 전체주의마저 경계한 것은 아닐까?



- 파블로 피카소, <The Dream>(1932)

아렌트는 언어적 큐비즘을 꿈꾸는가?

1. 악의 평범성

유대인인 아렌트에게 히틀러로 표상되는 전체주의는 아마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아렌트는 이러한 악몽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그 재판에서 아렌트는 전범 아이히만이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 아주 평범한 정상인이라는 데에 충격을 받고, 기존에 고수해오던 근본악 개념(〈전체주의의 기원〉)을 악의 평범성(〈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개념으로 바꾸어 주장하게 된다.

아렌트는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이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회의하면서 사유하지 않는대서 그 원인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특히 아이히만의 무사유를, 어떠한 가치나 감정이 포함된 언어보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관청 용어와 진부한 클리셰만을 반복하는 언어 습관과 연관하여 지적한다.

그의 말 하는데 무능력함(inability to speak)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¹⁾

히틀러가 지시한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언어의 사용은 마치 네그리가 언급한 제국의 전쟁의 '탈신체화'를 떠올리게 한다. "전쟁은 테크놀로지적 관점에서는 가상실효적이 되었으며, 군사적 관점에서는 비신체적이 되었다. 미군들의 신체는 위협에 처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적국의 전투원들은 효과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죽임을 당한다.", "미국 지도자들이 비신체적인 전쟁 또는 군인 없는 전쟁을 상상할 때, 그들은 물론 오직 미국 군인들의 신체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적들의 신체는 분명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비대칭은 그 모순을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싸우는 당사자 중 한쪽에만 전쟁을 종식시킬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권력이 전쟁에서 결코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 권력이 전쟁을 종식시킬 어떤 동기를 갖겠는가?"²⁾ 그래서 보드리야르는 말했었다. "이라크전은 발발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제국의 비신체적 전쟁과 히틀러의 가치가 배제된 언어는 타자의 아픔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일으켰다.

악에 대한 아렌트의 이러한 통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주었다. 예컨대, 1940년대의 독일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피 솔의 마지막 나날들, Die letzten Tage〉(2005)은 주인공 소피가 나치에 반대하는 전단을 돌리다 오빠와 함께 체포되고 심문받은 뒤 결국에는 재판으로 처형되는 과정을 다룬 영화이다. 아렌트와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소피의 심문과정에서 보이는 나치 형사의 태도이다. 이 형사는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관습처럼 사용되는 사악한 인물이 아닌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를 지닌 공무원처럼 묘사된다.

아렌트와 관련된 또 다른 문화적 판본은 최근에 개봉한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 The Reader〉(2008)이다. 베른하르트 솔링크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한나 슈미츠(그렇다. 무려 '한나(Hanna)'다. 하지만, 우리의 한나(Hannah)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문맹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녀가 끝까지 보여주는 책 읽어주는 행위(언어적 행위)에 대한 집착과 전범으로서의 그녀의 과거, 그리고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되면 이 작품은 아이히만의 이야기와 묘하게 공명하게 된다.

아렌트와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과연 아이히만이라는 개인이 사유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했다면 많은 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유대

1)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2)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 정남현, 서창현 옮김, 〈다중〉 75~78쪽

민족과 독일국민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인류의 비극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쩌면 인간이란 게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다.

사회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에 관한 실험을 생각해 보자. 밀그램은 나치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단순히 어린 시절부터 이뤄진 엄격한 교육의 결과로 형성된 '권위주의적 성격'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당시의 널리 알려진 가설에 의문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이 명령에 굴복하는 이유가 성격보다 상황에 있다고 믿었다.³⁾

밀그램은 그러한 자신의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심리학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위대한 실험을 계획했다.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가짜 '충격 기계'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모아 한 사람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사실로 믿고 전기 충격을 가했다. 하지만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받고 고용된 배우로서 가짜 고통을 연기하고 심지어는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⁴⁾

실험의 결과 65%에 이르는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 전기충격을 가했다. 밀그램은 결과에 충격을 받고 사람에 대한 혐오증에 빠져들었다. 그는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그럴 만한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양심과 도덕규칙을 무시하고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의 충실한 처형자들: 평범한 독일인과 홀로코스트, Hit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의 저자 다니엘 조나 골드하겐은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홀로코스트의 원인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을 대단히 우려했다.

“밀그램이 설정한 상황은 피실험자들이 스스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세상에서 나치 장교들은 낮에 사람들을 살해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밀그램의 실험은 그런 선택 요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⁵⁾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실험이 존재한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Stanford Prison Experiment)이라 불리는 이 실험은 〈엑스페리먼트, Das Experiment〉(2001)를 통해 영화화되었다. 이 실험 또한 상황에 지배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었던가. 이와 유사한 모습이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인간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쥐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밖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론의 돼지'⁶⁾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네그리가 강조하는 살(flesh)과 신체의 대립구조를 떠올리게 만든다.

네그리의 살은 무엇보다도 유기적으로 조직된 신체와의 대비 속에서 사용된다. 신체가 유기적으로 구축된 명령과 복종의 통일된 질서를 지칭하는 반면 살은 새로운 경험과 행위의 가능

3) 로렌 슬레이터 지음, 조종열 옮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50쪽

4) Ibid

5) Ibid 83~84쪽

그 외에 또 다른 비판들- 김태형 지음, 〈스키너의 심리상자 닫기〉 36~50쪽

6) 이문열 지음

성의 조건으로, 역사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다. 삶은 순수한 잠재력이자 형성되지 않은 삶의 힘이며, 이런 의미에서 부단히 삶의 충만함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존재의 원소이다. 다중은 이런 의미에서의 일종의 사회적 삶, 하나의 신체가 아닌 삶, 공통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다중은 노동의 공통적 주체이며 집합적 자본이 그 전지구적 발전의 신체로 만들려고 애쓰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로서의 다중은 전지구적 자본의 신체인 제국 신체로 조직되는가 그 내적 힘을 통해 스스로를 비유기적 방식의 자율적 힘으로 조직하는가하는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 놓여 있다.⁷⁾

인간은 단순히 상황에 지배를 받는 기계적인 신체인가? 아니면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살인가? 위에 언급한 영화 〈소피 솔의 마지막 나날들〉의 주인공 소피는 인간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숭고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몇 편의 독일 작품을 언급했으니 마저 독일 영화로 이야기하겠다. 〈타인의 삶, Das Leben der Anderen〉(2006)에서 주인공인 비밀경찰 비즐러는 반체제의 가능성이 있는 극작가 게오르크 드라이만과 그의 여자 친구인 연극배우 크리스타-마리아 질란트를 도청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주체적 선택을 한다. 몇십 년 동안 조국에 충성한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그의 선택은 인간이 단순히 시스템에 포획된 신체로서가 아닌 창조적인 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되면서도 영화의 엔딩에서 보여준 그의 담담한 모습은 심지어 칸트가 말한 역학적 숭고, 즉 어떤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대상,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저항 불가능함을 견디고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숭고미를 보여준다.



- 프랜시스 베이컨, 〈Three Studies for Self-Portrait〉(1976)

인간은 자율의지를 지닌 살인가? 아니면....?

2. 다중

7) 네그리, 〈다중〉, 용어해설 479쪽

다중(multitude)의 개념을 정리하는 위해 우선 민중(people)과 대비시켜보자.

민중은 하나(일자)이다. …… 민중은 사회적 차이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종합하고 환원한다. 이와 달리 다중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복수적이고 다양한 상태로 남아 있다. 정치철학의 지배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민중이 주권적 권위로서 지배할 수 있고 다중이 그럴 수 없는 이유이다. 다중은 **특이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특이성은 그 차이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주체, 차이로 남아 있는 차이를 뜻한다. 민중의 구성 부분들은 무차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신들의 차이들을 부정하고 단념함으로써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 따라서 다중의 복수적인 특이성들은 민중의 획일적인 통일성의 반대편에 서 있다.⁸⁾

스피노자에게 물티투도(multitudo)는 공적인 무대에서, 집단적 행동에서, 공동체의 사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un Un)로 수렴되지 않은 채, 운동의 구심적인 형태 내부에서 소멸하지 않은 채 그 자체로 존속되는 다원성[복수성, plurality]을 가리킨다. 다중이란 다수(Nombre)로서의 다수의 사회적, 정치적 실존 형태이다. 그것은 일시적(episodique)이거나 중간적인(interstitielle)형태가 아니라 영구적인 형태이다. 스피노자에게 물티투도는 시민 자유의 주춧돌이다.⁹⁾

네그리는 다중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삶 자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권력인, **삶권력(biopower)**에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삶정치(biopolitics)**적 생산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삶정치적 생산은 지식, 정보, 소통, 정동(affect)¹⁰⁾등을 생산함으로써 공통적인 삶을 생산하는 다중의 구성활동을 지칭한다. 요컨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것에 걸친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을 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¹¹⁾

이 개념에도 볼 수 있듯이 다중이란 개념 안에는 노동(poiesis)과 정치적 행위(praxis)와 지성(정신활동)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빠울로 비르노**는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말한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의 세 범주, 즉 노동, 작업, 행위를 구분한 문제의식만을 취하여 인간 경험의 근본적인 영역을 위의 세 가지 범주(노동, 정치적 행위, 지성)로 나눈다.

비르노는 포디즘으로부터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오늘날 노동의 세계가 정치적 행위의 무수히 많은 전형적 특징들을 흡수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와 노동의 융합이 현대적 다중의 특징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아렌트는 일찍이 노동과 정치를 가르던 경계선이 붕괴한 것을 비난하였다. 아렌트는 정치가 노동을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말하자면 20세기 정치는 새로운 대상-국가, 정당, 역사 등의 제작(fabrication)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르노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었다고 역설한다. 그는 정치가 노동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이 정치적 행위의

8) Ibid 135쪽

9) 빠울로 비르노 지음, 김상운 옮김, 〈다중〉 38쪽

10) 정동(affect)/정동적 노동: `정동`은 스피노자에게서 온 개념이다. 외부 사물(외부의 몸)이 인간의 몸에 일으키는 변화로 인하여 몸의 능동적 행동능력이 증가·감소하거나, 촉진·저지될 때 그러한 몸의 변화를 몸의 변화에 대한 `생각(idea)`과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스피노자, 윤리학 III부 정리 3) 따라서 정동은 신체의 일정한 상태를 사유의 일정한 양태와 함께 표현하며, 삶의 활력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 정동적 노동은 편안한 느낌, 웰빙, 만족, 흥분 또는 열정과 같은 정동들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노동이다. - 네그리, 〈다중〉, 용어해설 484쪽

11) Ibid 479쪽

전통적인 합의를 획득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시대의 현실 추동력을 가진 다중의 모습을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2008년의 촛불 집회였다. 촛불 시위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해 볼 때 최장집의 발언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자발성과 힘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로서 촛불은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운동에 의한 반대는 단일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 이후 성취할 목표들을 세밀하게 따지고 조율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정당을 만들고 약한 정당을 강화해 '반대'가 아닌 '통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예의 그 '정당 민주주의론'을 다시금 강조하였다.¹²⁾

최장집이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의 이러한 관점은 다중의 관점과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비르노는 "다중은 정치적 대의체제(representation)의 메커니즘을 방해하고 해체한다. 그것은 자신을 '행동하는 소수'의 총체로 표현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다수로 변형시키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부가 되기를 거부하는 역량(power)을 발전시킨다."¹³⁾라고 말한다. 네그리가 스피노자의 절대 정부(통치) 개념에서 도출하여 사용하는 개념인 절대적 민주주의(absolute democracy) 또한 대의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다. 절대적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인 대중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활동을 구성해감으로써 기존의 지배 권력을 변형시켜가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존의 지배 체제 속에서 특정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규칙을 만들어 지배 체제와 다르게 운영해나가면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그렇다면, 대의제를 넘어서는 다중의 정치적 공간은 과연 어디일까? 답은 이미 위의 촛불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3. 시장 혹은 광장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시장의 철학자로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언급한다.

우리는 현상세계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사이를 영속적으로 부단히 오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상을 적용시키거나 행위를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열중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두 영역에서 동일하게 편안함을 느끼고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외견상 최대한 편이하게 이동한다는 의미와 더 많이 연계된 사상가의 모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을 담당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자신을 소수 또는 다수로 분류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배자가 되려는 열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탁월한 지혜 덕택에 집권자들에게 조언하는 데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굴종적인 지배를 용인하지는 않는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는 항상 다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였고, 시장을 피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과 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시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상가이다.¹⁵⁾

12) 한겨레 신문, '최장집 교수 "촛불시위, 긍정적이지만 한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0172.html

최장집의 정당 민주주의론을 위한 참고 자료-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3) 비르노, 〈다중〉, 223쪽

14)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지음, 윤수중 옮김, <제국> 용어해설 539쪽

15) 한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정신의 삶 1- 사유〉 258~259쪽

위의 인용문에서 (내가)강조한 부분은 다중에 대한 정의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에 시장 혹은 광장이라는 활동 공간을 더하면 소크라테스를 최초의 인격화된 다중 모델이라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긍정하며 세계를 떠나지 않고 지금-여기서 사유하며 행위 하는 인간을 꿈꾼다. 그녀는 과거로의 기억이나 미래로의 상상으로 도피하지 않는 현재의 모습(nunc stans)을 강조한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역설한 페리클레스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사적인 일뿐 아니라 국가의 공공업무에도 관심이 있다. 자신의 사적인 사업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반 정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 아테네에서 그런 사람은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¹⁶⁾

혹은 셰익스피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어떤가?

"브루투스여, 우리가 비천한 하인인 것은 운명의 탓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탓일세."
The fault, dear Brutus, is not in our stars, But in ourselves, that we are underlings.¹⁷⁾

소크라테스의 시장, 촛불의 광장, 그리고 다중의 자율의지에 따른 행동들을 기억하며 다중의 공저자이자 네그리의 제자인 하트의 인터뷰를 보자.

메트로폴과 다중의 관계가 공장과 산업 노동자의 관계와 똑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적용됩니다.

첫째, 메트로폴의 경우 생산이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 전체, 사회적 관계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생산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때 공장이 그랬듯이, 메트로폴은 착취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가치는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산하는 공유재로 결정됩니다.

셋째, 고대 그리스와 프랑크 식민지주의자에게 메트로폴리스가 그랬듯이, 메트로폴은 계급 구조의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트로폴은 대립과 봉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의 봉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며, 도시 형태 자체에 대한 봉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피켓 시위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업 노동자들은 일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길을 차단하고 도시에서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 파리 교외의 폭동은 더 복잡한 예입니다. 물론 교외 지역의 청년들은 인종차별, 신노동법, 전반적인 불안정에 대한 반발로 폭동을 일으켰지만 도시에 대한 폭동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불태웠습니까? 자동차, 교통수단, 학교 등은 도시가 그들을 배척하고 순종시키는 도구로 지닌 핵심적 상징물들이었습니다.

16) Pericles, 'Funeral Oration' in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17)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줄리어스 시저>

그렇다고 시골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메트로폴화되고 있습니다. 시골과 도시는 이제 과거의 기준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적어도 내가 아는 국가들에는 모든 거리에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통제를 위한 메트로폴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메트로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50년 대프랑스 농부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외됐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단도 부족했습니다. 요컨대 정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매일 공장에서 만나 각자의 생각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도시와 농촌 간에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¹⁸⁾

이러한 대립과 봉기의 현장으로서의 '메트로폴'을 소크라테스의 시장, 촛불의 광장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흥미롭다. 시위대들의 행위 본질은 무시한 채 현상의 불법성만 지적하며 이를 탄압하고 때로는 지워버리려는 공권력은 과연 어떤 반대급부를 부를까?(심지어 그들은 자동차, 교통수단, 학교 등을 불태운 것도 아니다.)

영하 날씨에 밤거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대도시에서의 봉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며, 도시 형태 자체에 대한 봉기"라고 보는 관점과 자신의 안온함을 방해하는 시각적 공해로 인식 "꿀 보기 싫다."라는 방어기제를 무조건 반응으로 발동시키는 관점. 이 관점의 차이는 상황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체제하의 개인 권리에 대한 존재론적 차원의 상식 문제에 가까운 게 아닐까?

네그리는 또한 식민지를 두고 다뤘던 제국주의 전쟁이 제국의 전쟁으로 바뀌는 경향을 설명하며 전쟁의 일상화를 이야기한다. 요컨대, 촛불 집회, 비정규직투쟁, 용산 참사, 혹은 최근의 노무현 추모 집회까지 일종의 비대칭적인 내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전쟁이 규칙이 되고 오히려 정치가 예외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적으로 구성된 다중의 내전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는 구시대적 참수모형을 들고 와서 "주동자"타령을 하고, 환경박탈모형을 끌고 와서 광장봉쇄를 하는 것도 웃지 못할 시대착오다. 에른스트 블로흐의 용어를 빌리자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나 할까?

최근의 한국의 광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내전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와 노동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이 서로 완전히 구분된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먹을거리 문제는 계급의 문제와 연결되고 그것은 또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등과 연계되며 나아가 정치적인 문제에게까지 이른다. 하지만, 아렌트는 정치적인 것을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자율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그녀는 정치혁명(미국 혁명)과 사회혁명(프랑스 혁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¹⁹⁾ 아렌트의 생각은 정치적인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총동(drive)을 사회정의 및 계급갈등의 요구로부터 분리시키기에 이른다.

네그리는 이러한 그녀의 이론을 18세기 혁명에 있어서조차 유지되기 어렵고 근대에는 더더욱 적용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의 압력들이 각각의 혁명적 형상들 속에서 절합되며, 그것들을 분리된 상자들에 분류해 넣는 것은 인민의 무장 투쟁과 게릴라 운동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정들을 신비화시킬 뿐이다. …… 무장저항과 해방은

18)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다중의 '공유'로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 극복"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

19) 한나 아렌트 지음, 홍원표 옮김, <혁명론>

동들-특히 20세기 반파시즘적 저항들과 반식민주의적 민족해방투쟁들-의 시절에 게릴라 세력들은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에, 예를 들어 반식민주의적 해방전쟁들과 반자본주의적 계급전쟁들 사이에 더욱 밀접한 절합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20)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작용으로서의 시장과 광장의 다중을 만들어 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네그리는 이것을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전환의 국면 아래에서 설명하였고, 나는 그것을 다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통해 이야기하겠다.



광장의 촛불들, 다중인가? 군중인가?

4. 포스트-포디즘과 신자유주의

포디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테일러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테일러주의는, 부품과 동작 등 모든 것을 표준화시키고(노동표준화)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까지도 세분화시켜서(노동세분화) 반 숙련 노동자도 최고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학적 관리기법이다. 포디즘은 이러한 테일러주의를 물질화시켜 생산라인의 기계화를 이루어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 Modern Times〉(1936)에서 볼 수 있듯이 컨베이어 벨트로 표상되는 이러한 포디즘의 기계화 이면에는 분배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포드는 이러한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로 인해 얻게 되는 성과물을 자기가 다 갖지 않고 노동자들과 같이 나누겠다고 선언한다. 요컨대,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임금이 올라간다는, 그래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주겠다는 분배에서의 효율 향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동기 유발을 꾀하였다.

이후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케인즈는 기존의 세계 경제를 이끌던 '보이지 않는 손' 헤게모니를 비판하며 유효수요 이론을 발표한다. 요컨대,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고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만들어낸 과잉 생산이 공황의 원인이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소비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국가 차

20) 네그리, 〈다중〉 113쪽

원의 분배 정책과 연계되는데, 국가가 집적 나서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면 소비는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들어 있다. 이는 일종의 국가 정치 차원의 포디즘이라고 볼 수 있다. 케인즈의 이러한 이론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힘을 받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되었다.

테일러주의와 포디즘 그리고 케인즈주의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표상되는 제국주의 전쟁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개별 국민국가 간의 전쟁이 세계의 규모만큼 커졌지만, 전쟁의 본질은 식민지를 두고 다투는 과정의 분쟁이었고, 이러한 식민지 다툼은 제국주의의 더 나아가 시장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끝없이 필요한 자원, 노동력, 소비시장-때문에 야기되었다.

반면, 포스트-포디즘은 포디즘 이후의 체제로서 컴퓨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보테크놀로지의 적용,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표준화된 상품의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생산, 금융시장의 지구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요컨대, 기계화, 자동화를 넘어서 정보화에 이른 단계로서 지식, 정보, 소통, 정동 등이 생산에 중요한 담당력이 되고, 노동 행위의 범위가 광역적으로 넓혀져 노동 자체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노동화 되어 간다.

이렇게 포스트-포디즘은 삶정치(biopolitics)적 생산과 연관되어 다중에게까지 이어지고, 전쟁의 양상 또한 개별적 국민 국가들 간의 국지전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전지구적 전쟁으로 바뀌게 된다. 포디즘 시대에선 정치는 전쟁보다 우위에 있고 전쟁은 예외적인 것, 정치는 정상적인 것이었는데, 포스트-포디즘 시대에선 전쟁이 정치를 규제하고 정치가 전쟁의 다른 수단에 의한 연속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쯤에서,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에릭 홉스봄의 고찰을 새겨듣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체성은 대영제국과 한때 공유했던 과거사와는 별개였다. 그보다 자신의 혁명적인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공화국의 제도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웃과 적을 구분하면서, 자신들을 규정한다. 하지만, 남북전쟁을 빼고는 단 한 번도 외부 세력으로부터 위협받은 적이 없는 미국은 지정학적·역사적 측면에서 적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데올로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미국적 삶의 방식을 부정하는 나라들이인 셈이다.²¹⁾

홉스봄이 제국주의와 제국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이 인용문에서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 틀에서, 미국은 제국의 틀에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일인 듯하다. 비록 제국이 하나의 국가에 귀속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미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영향력을 단순히 일국적 차원의 틀에서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세계를 휩쓴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 또한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한 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비르노의 ‘다중과 포스트-포드주의적 자본주의에 관한 열 가지 테제’ 중에는 “다중은 그 자체로 노동사회의 위기를 반영한다.”라는 테제가 있다. 이 체제의 설명에서 비르노는 노동사회의 위기가 노동시간의 감소와 직선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동의 종말’을 고한 제러미 리프킨의 입장을 비판한다.²²⁾ 나는 비르노와는 다른 맥락에서-신자유주의 체제의 틀 안에서-리프킨의

21) 〈르몽드 디플로마트크〉, ‘지칠 줄 모르는 미 제국주의의 욕망’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

22) 비르노, 〈다중〉, 172쪽

예측을 비판하겠다.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시장과 정부의 역할 축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취업자들은 노동 시간 단축과 보다 많은 레저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이를 대중오락과 소비 생활에 투자할 것이다. 반면에 증가하는 실업자들과 잠재적 실업자들은 하층 계급 속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져지는 자신들을 발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비공식 경제에 의존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임시직에 종사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과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사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지만 건강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마약과 매춘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호소를 묵살할 것이다.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는 복지와 일자리 창조가 아니라 경찰력 강화와 감옥 건설이 될 것이다.²³⁾

리프킨의 이러한 헤안은 지금에 와서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묶이기에 아주 적당한 것이다. 하지만, 리프킨이 이러한 현상의 본질로 파악한 “정부의 역할 축소” 또한 정확한 것일까?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서 1979년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 분석한 미셸 푸코의 이론을 살펴보자.

18세기의 자유주의는 교환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관념 위에 서 있었다. 시장 참여자는 교환 과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 시장이 확대될수록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는 그 효용성을 전면적으로 의심받았다. 시장에 개입해 균형점 도달을 지체시키는 국가는 작을수록 좋다는 관념이 팽배해졌다. 더 나아가 정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에까지 도달했다. 19세기에 들어서, 시장의 본질이 교환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동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이론적 변화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교환이건 경쟁이건, 그 과정과 결과는 ‘자연적인’ 섭리로 존중받아야 하며, 정치는 최소화되고 배제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졌다.

반면, 20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자유주의는, 이름은 닮았지만,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교리를 내포하게 된다. 푸코의 분석이 크게 빛을 발하는 부분은 이 지점이다. (독일의)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경쟁이 전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후설을 인용하면서, 경쟁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나타나는 형상(form)과 같은 것이라고 이론화했다. 그렇다면 경쟁은 인간들의 충돌을 통해 ‘인위적으로’ 드러나게 해야만 한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경쟁을 형상으로 삼아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의 자리가 있다. 정치는 경쟁을 전파하고 주입시키기에 유리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는 ‘작은 정부’라는 수사 아래 공격적인 통치술을 수행한다. 이 통치 전략은 억압적이고 외면적인 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내면적인 선택의 지점에까지 파고든다. 그 결과 사회의 각 영역에서 난폭한 서바이벌쇼가 벌어지지만, 이것은 자유가 구현되는 유일한 방식으로 간단히 받아들여진다.²⁴⁾

23) 제러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24) 〈한겨레 21〉, ‘신경민 앵커와 신자유주의’

<http://h21.hani.co.kr/arti/COLUMN/15/24881.html>

푸코는 정부의 역할 최소화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억압적 통치술을 발견했다. 거기에 본의 특기를 살려 자율의 탈을 쓴 채 내면화된 타율을 꼬집는다. 이 지점에서 푸코의 이야기는 네그리가 삶정치적 생산의 대립점으로 파악한 제국의 삶권력(biopower)과 오버랩된다.(〈다중〉의 `거대 정부가 돌아왔다.`를 참고하시라. 220~223쪽) 결국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판옵티콘 아래에서의 자유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정부, 야경국가가 때려잡는 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현실의 광장과 인터넷 광장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의견(doxa)은 여지없이 통제되고 훈육의 대상이 된다. 사실 우리의 경우엔 이 과정이 너무 노골적인, 거의 포르노의 수준에 가까워 굳이 푸코를 들먹이기에 미안할 정도다.

허울 좋은 자유의 가면을 쓴 이 거대한 가상공간에서 통제되고 훈육 된 타율이란 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는 사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클리셰만 반복하는 아이히만의 모습을 발견한다. 인터넷을 대표하는 젊은 논객 중 하나인 한윤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심슨〉의 에피소드 중 하나. 워싱턴에서 열리는 웅변대회 본선에 나가게 된 심슨 가족의 딸 리사는 우연히 하원의원의 비리를 목격하고 준비한 원고를 버린 후 격앙된 어조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썩었다는 요지의 연설을 시작한다.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청중 중에 섞여 있던 요원이 한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건다. "소녀 한 명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있습니다!" 대경실색한 상원의원은 잇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원에서, 하원에서 규탄의 결의안에 통과되고 비리의원은 곧바로 체포된다. 리사가 연설을 끝낼 때쯤엔 이미 신문에 그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연설을 끝낸 리사가 신문을 보고 외친다. "System works!"

물론 이 만화에 나오는 미국 정부의 기만한 행동은 과장되어 있고,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정치가 항상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시스템의 책략, 보드리야르식으로 말하면 '시뮬라크르의 저지 전략'이다. 하지만 체제가 그런 저지 전략조차 취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체제가 부럽기만 하다.

언젠가 진중권은 대선 자금 수사에 관한 칼럼을 쓰면서, 보드리야르식으로 말하면 미국에서는 부패를 엄중하게 처단하는 것이 시뮬라크르의 저지 전략이지만 한국에서는 '어차피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냉소적인 인식이 시뮬라크르의 저지 전략인 것 같다고 썼다. 우리는 다들 어차피 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영화 〈괴물〉에서 그러는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황에 대응하려 든다.²⁵⁾

〈심슨〉²⁶⁾의 제작진은 아마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보드리야르²⁷⁾의 분석을 패러디했나 보다. 보드리야르는 권력 자체에 내재한 모순을 닉슨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며 이를 시뮬라크르 저지 전략의 한 예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 더 재미있고 뼈아픈 통찰은 정치인의 부패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냉소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다. "정치인은 어차피 다 썩었어. 누굴 뽑으냐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흔해 빠진 이러한 클리셰들과 냉소적인 태도의 문제점은 발화의 순간

25) 〈프레시안〉, "'희망' 타령하는 기성세대는 답해 보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1111164542&Section

26) 〈The Simpsons〉, 'Mr Lisa goes to Washington'(S03E02)

27) 진중권은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이 미디어 이론가 귄터 안더스의 책 〈팬텀과 매트릭스로서의 세계, Die Welt als Phantom und Matrize〉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263~264쪽)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을 노골적 텍스트로 사용한 워쇼스키 형제의 영화 제목은 바로 〈매트릭스, The Matrix〉(1999)이다. 안더스의 본명은 귄터 슈테른이고 그는 한때 한나 아렌트의 남편이었다.

더 이상의 사유가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버린다는 데 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의 역할만 다 했다고 항변하는 아이히만과 정치는 어차피 썩었다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다만, 상황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이 경우에는 밀그램의 승리이다. 단, 그의 말에서 한 가지 부분은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여성적인 사람도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만한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양심과 도덕규칙을 무시하고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5. 다중에 대한 비판

내가 보기에, 네그리-하트의 〈제국〉에는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서로 다른 교환의 연관구조라는 시점이 없습니다. 들뢰즈-가타리는 확실히 흠 패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이라는 이원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그리는 그것을 응용하여 ‘제국’과 ‘다중’이라는 이원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으로 〈공산당 선언〉에 써어있는 2대 계급의 결전과 같은 것이 됩니다. 내 기억으로 네그리-하트의 〈제국〉이라는 책은 9·11 직전까지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위험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에 대항하는 ‘다중’속에는 이슬람 원리주의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 카에다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제국〉에서 그들은 걸프전쟁에서의 미국의 태도에 기초하여 그것을 ‘제국’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행동은 유엔의 지지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국주의와는 다른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어튼 나는 옛 〈공산당 선언〉에 있는 것과 같은 2대 계급을 상정하여, 프롤레타리아트=다중에 기대를 거는 것은 공소(空疎)하며 아무런 전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지도 모릅니다.²⁸⁾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제국’은 본래 경험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자본의 네트워크 그 자체인 것이다. 그것에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다중’도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이나 노동자 계급이라는 현상에서 사라져버린 무엇이다. 다중은 다중다양한 네트워크로서 있으며 또 절대적으로 민주주의적이다. 그것은 근대국가와 자본제경제 하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이지만, 국가나 자본에 의해 항상 소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다중을 자유분방하게 발현시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스피노자에 의거하여 서술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의 사고라고 말하는 편이 좋다. 프루동은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나 인민 주권은 절대주의왕권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그의 생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장래에 실현될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은 자본과 국가가 지배하는 경험적 세계의 심층에 존재하는 것으로, 연합적으로 상호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심층의 ‘리얼한 사회’를 발현시키면 되는 것이다.

사실 마르크스를 포함한 독일의 청년 헤겔파는 이 같은 사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네그리와 하트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 계급처럼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중이라고 말한다. 초기 마르크스의 사고는 확실히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공산당

28)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근대문학의 종언〉 123~124쪽

선언〉(1848)을 현대적인 문맥에서 되찾으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제국(자본) 대 다중(프롤레타리아)의 세계적 결전.

그러나 이와 같은 이원성은 국가들의 자립성을 제거할 때만 상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신화적 환기력을 가지며 실제 1960년대에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같은 쇠외론적=신화론적 사고를 취한다면 일시적으로 정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라도, 무의미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자본주의(제국)가 아무리 심화되더라도 국가나 네이션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자본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⁹⁾

가라타니와 대담자들은 〈근대문학의 종언〉에서 네그리의 〈제국〉과 〈다중〉을 비판한다. 〈제국〉이 9·11 설득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후에 출판된 〈다중〉 또한 마르크스적 이원론에서 제국은 다중의 한 모습이며 그 현대적 형태라는 식으로 다중 일원론으로까지 환원하였지만, 다중이 어떻게 제국이나 그 외 주권의 형태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다중’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명확하게 한정 짓기엔 모호함이 따른다. 예컨대, 2002년과 2008년의 촛불이 다중이라면, 황우석 사태나 〈디 워, D-War〉(2007)소동의 주역들은 누구인가? 자율적인 다중지성, 떼 지성(swarm intelligence)과 소비니즘, 파시즘적 광기의 경계는 무엇일까? 단순히 사후적인 가치평가만이 가능한 영역일까? 일련의 사태에서 늘 최고 격전지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중권의 말을 들어보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중은 엘리아스 카네티가 말한 ‘군중’이 될 수도 있고, 네그리가 말하는 ‘다중’이 될 수도 있다. 역사적 텔로스를 상실한 대중은 더 이상 민중이 될 수 없기에, 이제 파시스트적 군중이나 자율주의적 다중이 되어야 한다. 자율적 개인으로 흩어져 지성의 연대를 구축할 때, 대중은 다중이 된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의 에너지를 모아 폭력적으로 분출할 기회를 찾아 배회할 때, 대중은 군중이 된다. 이번 사태에서 대중이 보여준 양태는 과연 어디에 가까울까?

기사를 상품으로 팔아야 하는 몇몇 매체는 파시스트 군중의 행태를 외려 ‘대중지성’으로 축성하기에 바빴다. 놀라운 것은 이 군중의 폭력에 이른바 제법 진보적이라는 지식인들까지 편승했다는 사실. 대중이 다중이 되기 위해서는 문자문화의 성취인 합리성이 필요하나, 그들은 그 폭력적 사태를 버젓이 지켜보고도 군중과 지식인 사이에 그 허구적으로 설정된 전쟁에서 기꺼이 군중의 편을 들었다. 이론적 미련함의 소치일까? 아니면 정치적 영리함의 결과일까?³⁰⁾

또한, 이 시점에서 작년 촛불 집회의 의미를 두고 벌어지는, 〈다중〉의 공역자 조정환과 이택광의 논쟁을 지켜보는 것 또한 유의미할 것이다.³¹⁾

6. 절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

29) 가라타니 고진 〈아시아신문〉(2005년 12월 11일)에 쓴 〈다중〉의 서평, 〈근대문학의 종언〉 251쪽에서 재인용.

30) 진중권 ‘군중이냐 다중이냐’, 〈문예중앙〉(2007년 가을호)

31) 〈한겨레〉, ‘촛불’ “자율적 주체의 붕괴” “중간계급의 ‘욕망 정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646.html

조정환 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nalsee> 이택광 교수 블로그 <http://wallflower.egloos.com/>

우리는 지금까지 아렌트와 네그리의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왔다. 이쯤에서 현실정치에서 과연 다중의 절대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법 하다.

네그리가 사용하는 절대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스피노자의 절대 정부(통치)개념에서 도출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대의제를 비판한다는 의미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와의 대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절대적 민주주의란 그 구성원인 다중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활동을 구성해감으로써 기존의 지배 권력을 변형시켜가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지배 체제 속에서 특정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배 체제와 색다르게 운영해나가면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³²⁾

절대적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대의제의 유형에 대해 구분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막스 베버는 대의자들과 피대의자 사이의 분리 정도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들-도용된 대의, 자유로운 대의, 구속된 대의-을 구분했다.

전유된 대의(appropriierte Repräsentation)는 가부장적 대의라고도 불리며, 대의자들과 피대의자들의 사이가 가장 약하게 연결되는 형식을 말한다. 이 유형에서는 대의자가 피대의자들에 의한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고 통제되지도 않는다. 대의자는 피대의자들의 이해관계와 의지를 단지 해석할 뿐이다. 예컨대, 오늘날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초국적 조직들이 태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대의하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자유로운 대의(freie Repräsentation)는 중간 위치에 놓이며 의회 체제에 전형적 유형이다. 여기에서 피대의자는 대의자들과 다소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만, 대의자들에 대한 통제력은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거 체계에서 피대의자들이 행사하는 선택이나 통제는 주로 시간적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왜냐하면 피대의자들은 오직 4년 또는 5년마다 대의자들과 연결될 뿐이기 때문이다. 선거 사이에 대의자는 피대의자들의 지시나 협의 없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구속된 대의(gebundene Repräsentation)는 피대의자들이 끊임없이 대의자들을 통제하는 형식이다. 더 강한 연결을 창출하고 피대의자들의 지시에 대의자가 항상 복종하도록 구속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은 모두 대의자의 자율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예컨대, 잦은 선거나 대표자의 항상적 소환가능성은 정기적 선거라는 방식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시간적 제한을 무너뜨린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의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 역시 피대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제한을 줄인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 역시 대의의 분리를 감소시킨다.³³⁾

이러한 베버식 유형학에서 우리는 하나의 정치적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다. 모든 전유된 대의 형식을 더 직접적으로 구속되는 형식들로 변형하면서 피대의자들과 대의자 사이의 연결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결코 절대적 민주주의,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제의 형식을 넘어서 다중이 권력화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각각의 개별적 개인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의견을 모으는 작업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도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대의제가 가장 합리적 제도 아닌가?

여기에 대담으로 역자인 조정환은 두 개의 시간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마르크스식으로 이야기

32) 네그리, 〈제국〉 용어해설 539쪽

33) 네그리, 〈다중〉 296~299쪽

하면 노동시간(labor time)과 삶 시간(life time)이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구분의 어느 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고 두 시간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살아야 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이 두 시간의 긴장 속에서 또한 결정의 문제를 사유하여야 하는데, 노동시간의 강제 속에서는 한계 부여라는 수동적 측면의 결정인 determination이, 반대로 삶 시간 속에서는 사건 구성이라는 능동적인 측면의 결정인 decision, 곧 주체적인 결정이 있다. 우리는 두 개의 시간 안에서, 두 개의 결정 사이에서 끝없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절대적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논지이다. 예컨대, 삶 시간의 중요성을 사유할 수 있다면 굳이 다수와 소수를 나누는 투표행위(대의제)에 성급하게 뛰어들 이유가 없다. 투표행위 자체에 다수와 소수의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고 이것이 나중에 대립과 투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계급 차별 자체가 삶 시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말이 되고 decision의 문제를 determination의 문제로 환원시킨 결과이다. 그러므로 두 시간 축을 성급히 깨트리기보다는 어떠한 정치적 과정 속에서 더 많은 토론과 사유의 생산을 꾀하며 서로 공통의 것을 창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에서 내가 제시하고 싶은 개념은 아렌트의 공통감이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특수성'이나 '보편성'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반성', 즉 공동체감에 입각한 보편성이다. 클로드 모네의 '루앙 성당' 연작을 떠올려 보자.



이 연작에서 인식의 대상인 루앙 성당은 하나이지만 동시에 수없이 많은 루앙 성당이 존재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복수성(plurality)이 존재 하지만, 복수성들 사이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푸코가 이야기한 상사(相似, similitude)의 관계이다. 이 경우에 복수성은 특별한 준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위계를 세우는 유사(類似, resemblance)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다중이 지향해야 할 다수의 공통감은 바로 이 상사의 관계가 아닐까? 타자에 대한 관용(tolerance)이 존재하면서도 자신의 사유와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간주관적(intersubjective) 관계 이것이 바로 다중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한 나아가야 할 모습일 것이다.

7. “인생은 지금-여기에 있다.”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할수록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나 혼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비참함과 함께 타인들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 못 할 때도 잦았다. 예컨대, 매달 백만 원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쓰고, 교육열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상기해 보라.³⁴⁾ 정치의 문제 또한 단순히 보수성, 수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다수의 국민에게 만연한 무정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 더럽고 시끄러운 정치판에 무관심한 것이 오히려 고결한 인품의 방증이란 듯한 태도, 혹은 “먹고사는 일도 바쁜데 정치는 무슨...”이라는 냉소. 그들이 말하는 ‘정치’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와는 다른 것일까? 나는 지금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나는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분리한 아렌트의 반대하고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가 취직하고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놀러 가고, 무엇을 구입하는 것도 모두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정치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의 일치(coincide)를 말하는 것이다.

한동안 내 미니홈페이지를 장식하던 랭보의 말이 있다.

“la vie est ailleurs.”(인생은 다른 곳에 있다.)

이번에는 랭보가 틀리고 아렌트가 맞다. 인생은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 있다!

99. 노무현

이 글을 준비하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처음에 아주 더럽게 질 나쁜 농담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 만우절도 아닌데, 황당한 인지부조화였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처음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도 했고, 아는 거 없이 뜨거운 가슴만으로 응원을 보냈던 사람이기도 했고, 이후에 공부하면서, 그의 행보에 많은 비난도 했었다. 노무현은 그야말로 비주류, 진보, 서민의 표상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좌, 우 가리지 않고 많은 욕을 먹었다. 심지어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적 스포츠라는 농담마저 유행했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서 우회전”이라는 레토릭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나의 최종적 평가였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기란 어려웠다. 그만큼 최근의 박연차와 관련된 고백에 온종일 우울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서도, 그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적 문제를 먼저 탓하기도 했었다. 나 같은 동네 미물도 충격을 받았으니 당사자는 오죽 답답했을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데로 또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데로 그에겐 갑갑하고 탈출구 없는 현실이었을 것이다.

노무현을 향한 진보세력들의 비판의 논지에 나 또한 공감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중>을 보다가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출현 이후에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 또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일부 모방하였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이 정부 이전의 10년간의 이야

34) 충청남도-17.2%(08.06.25), 전라북도-21%(08.07.23), 서울시-15.5%(08.07.30), 대전시-15.3%(08.12.17), 경기도-12.3%(09.04.08)

기이다. 사실상 IMF 이후의 한국에겐 제국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기로 어려운 일이었을 게다. 그래서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도, 또 한미 FTA란 결정적 비수를 꺼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베어냈는지도 모르겠다.

가만히 추억해 보면 노무현은 다중과 제국 사이에 존재했던 대통령이였다. 노사모라는 자발적 개인 팬클럽과 희망대지라는 정치 성금, 최초로 인터넷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임기 중에는 탄핵 반대 촛불 집회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지금 그의 죽음 앞에 또다시 일어나는 일들 또한 다중의 열기가 아닐까?

노 전 대통령의 주변인들조차 쉽게 이해 못 할 대규모의 추모행렬, 내가 자주 방문하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선 만 이틀 만에 무려 이천만 원이 넘는 추모 광고 비용이 모이기도 했다. 서거 전날 하루 동안 120개가량의 게시물이 올라온 곳이었다.



듀나 영화 게시판의 회원들이 제작한 추모 광고 이미지. valentine30님의 작품.³⁵⁾

5월 29일 친구들과 함께 봉하마을에 갔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애도의 공기, 그곳에서 내게 가장 인상적인 건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추모 인파도, 내내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시고 자원봉사에 매달린 노사모 아주머니도, 무속인의 싹김굿도 아닌 젊은이들에게서 본 축제적 분위기였다.

원래 우리의 장의(葬儀)가 어느 정도 축제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극적 순간에 사진 찍고 친구들과 잡담하는 축제적 분위기라니. 나의 일행도 잇달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내심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사람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른 것

35) http://djuna.cine21.com/movies/pic_0045.html

아닐까? 그곳에 있는 모두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비록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일어나는 카니발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흐친이 말한 다성성(다중의 다성적(多聲的)목소리), 아렌트가 말한 콘서트 행위(act in concert)의 모습을 보았다면 나의 오버센스일까? 다중의 협력적 공존 관계 또한 이러한 축제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³⁶⁾

인터넷에서 유명한 만화가인 굽시니스트가 '본격 정치만화'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서거와 관련된 만화를 올렸다.³⁷⁾ 박정희의 신화가 그의-개인으로서의 비극적-죽음으로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저울의 반대편에 노무현의 서거가 올려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는 로고스, 에토스 보다 파토스에 가깝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파토스가 에토스화 될 수 있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정 앞에서 약속한 그 '기억'이 어떤 현실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하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민주화 이후에 선출된 모든 최고 권력은 전부 이 파토스, 에토스를 동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그것의 올바른 작동 여부는 차치하고-로고스 비슷한 흥내를 낸 결과는 우습게도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것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방향 전환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믿고 싶다!)

이 과정이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로운 건, 마치 종교의 중세에서 이성의 근대로, 그리고 다시 탈이성(혹은 이성의 이성, 계몽의 계몽?)의 현대로 흘러가는 철학적 조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 천 년이 넘는 통시적 흐름을 몇십 년 만에 패러디하는 게 바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표상이다.

마지막으로,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36) 축제와 다성성에 관한 참고-네그리, 〈다중〉 257~260쪽

잡담과 호기심에 관한 참고-비르노, 〈다중〉 151~163쪽

37) 굽시니스트, '본격 정치만화'

<http://homa.egloos.com/4152404>